



자리
평화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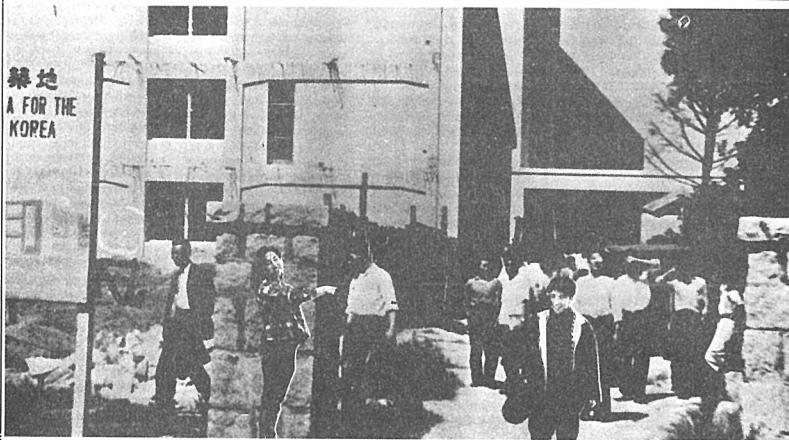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디2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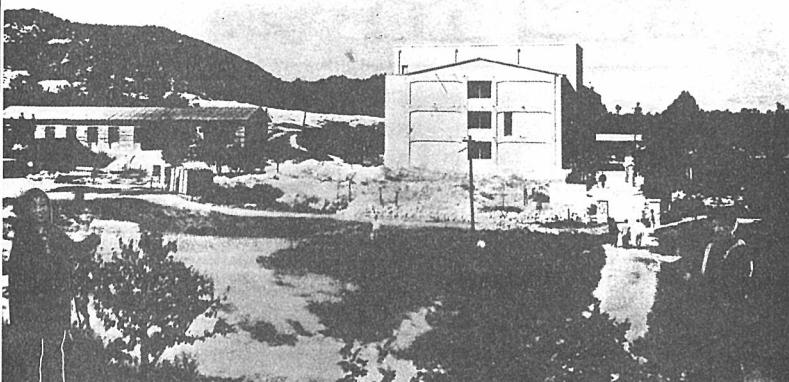
THE OE DAE HAGBO

발행인	이강희
주집인	김강덕
편집장	김강남
편집장	김상경
외대신문사	7128-961-4151
외 대 학 보	☎ 02-561-4152, 951-4183 (FAX/전용)
학생기자실	☎ 02-5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종로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산89
인쇄인	김상경

제627호 1994년 4월 18일 (월)
1994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기) 급인가



기획이와 보라의 외대역사 여행①



□ 이문동으로 교사 이전 후 등교모습 (54~64년)

기환 : 보라야, 여기가 외대 초창기 정문이래. 너도 여기에서 걸어봐.

보라 : 지금과는 굉장히 틀리네. 저 뒤에 선배님들은 벌써 할아버지가 됐겠지?



기획이와 보라의 외대역사 여행②

□ 70년 초기 이문동 전경 (65~74년)

보라 : 아니, 이게 웬 산골이야?

기환 : 옛날 이문동은 서울의 끝이었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 저 뒷쪽
건물이 지금의 본관이야.



기획이와 보라의 외대역사 여행③

□ 83년 서울캠퍼스 교문 현판식 (75~84년)

기환 : 어, 이곳은 굉장히 낯이 익은데!

보라 : 서울캠퍼스 교문 현판식 때 모습이야.
이때부턴 지금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지.
저 밑에 키 작은 분이
우리 학교를 세운 고 김홍배박사야.

기획이와 보라의 외대역사 여행④

□ 명수당 터 가꾸기 (85~94년)

기환 : 보라야, 이게 어떤 장면이야?

보라 : 너 왕산에 안 왔지. 이 장면이
그 아름다운 명수당 터를 가꾸는 모습이야.
기환 : 아,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의 외대가 됐구나.

제작 : 사진부

안병만 교수 제5대 총장 취임

어문학 중점투자·외대흔 창출 다짐
학생축, 중장기안·단기복지안 해결 요구

등투, 전환기 맞아

협상결렬 장기화 전망



이번 출장취임식은 대학의 위기애 및 시설 확장이 취임한 이에서 회내

전 구설구설의 관심을 끌었다.

본문 4·5대 총장은 예상대로

이 지난 14일(금)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교직원, 내외 귀빈 4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행

사는 교육계방이리와 대학의

위기애 앞에서 본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는데

서 대학 구성원의 기대를 모았

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신임 총장

이 제단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순서를 시작으로 이사

장지사와 강인석 총장, 김종

김종은 시장과 서울대 총장의 축사를

진행했다.

이강희 제4대 총장(법학과)

은 이임사를 통해 "년동간의

일임을 마치면서 만감이 교차

한다"며 "제4대 간 4년동안

매년 계수되는 등록금부정으로

인해 시간과 경력을 낭비하고

드리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

고 밝혔다.

이번에는 취임식에서 신임

인원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러나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나타냈다.

또한 강인석 총장문화강은

총장으로서 "교수 직원을

선임원 인원만 충장은 전 구성

원의 학습과 단결을 이를 구성

원과 학교와 단결을 위한

교수에게 모금한 돈으로 광

고개에 부정을 진영하고나니

교수의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박으로 심지 못하게 됐다"라

며 학교측의 압력행사를 비난

했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

하며 총장 밖에서 신임총장을

기다렸다. 이날 서울캠퍼스 학

생들은 교수들에게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단과 학생 요구서

한을 전달했다. 또한 유인캠퍼스

인원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장과 함께 대학 총장(법학과)

은 "세계속의 명문사으로 발

달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

는"이라는 취임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학정원은 늘어나

나온다"라고 밝혔고, 대학정원

감소수준, 교육시설개방 등의

위기애 앞에서 "어려운 분야 중점

부지를 통해 공공적 입장으로

대처, 세계적으로 뛰어나가는

대학으로 충장하고자 한다"고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학생들은

총

□강민석(불어 56) 총동문회 회장

◇개고 40주년을 맞아 동문·교수·직원·학생에게 듣는 외대발전



“재단은 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개교 40년을 맞이해서 동문회장으로서 갖는 소감은?

= 빛나는 우리학교가 40살의 나이라니 감회가 깊다. 그동안 대학에 배출한 인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어느 대학보다 크다.

개교 40년을 맞아 재단의 전기가 마련되어 한다는 본다. 중·중·외대의 개기가 돼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외대의 현세적 위상이

전보다 심화됐다고 한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외대의 현실적 위상은 어떻다고 보는가?

= 지난날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 또한 도전과 대처할 책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 「외대인의 날」 준비과정에서 재학생들과 동문회장을 통해 동문들이 결속화된 더러운 생생이다.

— 「외대인의 날」 준비과정에서 재학생들과 동문회장을 통해 외대인의 마찰이 있다면 안 되겠다는 입장은?

= 동문회와 학생회가 처음 함께하는 행사를 많이 찾았는데 밖으로하고 결

정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선배와 후배들의 만남의 장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거나, 외부에서 들리는 불미스런 소문을 너무 염마이지 않길 바란다.

— 용인캠퍸스 학생들의 세대인 속에서 축복과 기회에 대한 동문회의 입장은?

= 외대인의 날과 함께 치뤄진 평강으로서 인사말은?

= 불혹의 나이 외대는 나이값을 해야할 때가 많다.

홀로 서서 스스로 발전한 역량을 지녀야 하며 전 구성원들이 합심, 협력하여 외대 발전의 믿거리를 될 각오를 해야한다.

또한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해 시사될 것이다.

— 외대의 현재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 국제화·개방화가 더러운다. 외대의 특성은 외국화 발전에 이어가면서 학교와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으로 형성화된 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외대인 모두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 큰 외대발전이다.

— 교육시장 개방의 파고가 높다. 외대의 입시가 혼란보다는 맑아 많다. 외대가 대

해 나갈 길은?

= 지난날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대학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교육시장 개방은 거제 세계의 조류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힘과 지원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

— 외대인의 입장 단계별 때마다

전 외대인의 입장 단계별 때마다

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교수·학생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사회에 팽배한 불신풍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각자 개인이 암에 하지만 이 더불어 대학의 목적인 연구·기술·교수는 연구에 학생은 강의에 힘쓰면서 학생에게 시사될 것이다.

— 외대의 현재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 국제화·개방화가 더러운다. 외대의 특성은 외국화 발전에 이어가면서 학교와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으로 형성화된 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우리는 기상세대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에 대학에 발전을 주구하고 가족 현실적인 방

법으로 있어서 도약의 지름길은 국제화 종합연구센터 설립 등 그 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을 할 수 있는 지역학 연구에 학교가 학생을 기울여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선임하는 제도개선이 중장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와 노조가 비록 충장선출에 직접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작년에 어느정도 힘을

보태고 있다.

— 현제 건행되고 있는 등투에 대한 입장은?

= 지난날 준비한다면 활동할 일이 많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노력을하면 할 수 있다. 외대의 개성화를 꿈꾸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이드 라인은 전

□김정위 교수협의회 회장



“외대만의 개성화 창출을 위해 지역학 을 도입하는 것이 절 실하다”

국 종합대학 평균수준에서 상·하 1% 내외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 40주년을 맞아 교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행사는 별로 없다.

그러나 동문과 학부모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이드 라인은 전

□유기찬 노조 조합장

“현재 외대발전의 가장 큰 열쇠는 재단 의 사고가 열리는 것 이다”

— 지난해의 입장에서 외대 40주년을 맞는 입장은?

— 미뿐이라는 나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불혹의 해이다. 외대도 불혹의 해를 맞았을까? 그 나이에 아직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40년동안 학교가 의인석 번해왔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번하지 않았다. 이제는 재단의 사고가 열릴 때이다.

— 인법만 신입·총장 취임식에 대한 노동조합(이하 노조) 즉 입장은?

— 우리는 흥정이 누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단체총장 선출을 반대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인정되는 재단의 중장기연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 법은 개정돼야 한다.

여기 흥정의 모습은 재단에 종속된 관계였다. 신입·총장에게는 재단의 중장성을 헌법과 법으로 세운 술방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 우리는 외대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직원이 바라는 외대발전은?

— 외대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외대발전상을 마련해도 재단에서 원하지 않으면 무용

□서울캠퍸스 오춘열 총학생회장

“외대인의 날을 통 해 현시기 외대의 근 본적 위기요인과 그 대안을 합의해야 한 다”

— 이문동에서 수인개방지지투쟁(수지투)은 동문에서 늘어서 빛을 읽은 뜻에 보인다.

—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런 얘기를 듣다니 확장하다. 수지투와 재단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생회·체계의 이데아와 역량의 한계학우들은 서로 인정해 가지고 거기의 문제로 벌어지는 외대발전에 우선은 듣고 것이다.

— 중부가 원하던 학생회는 외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대발전을 책임지기로 했던 이유를 했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 신임총장에 대한 학생회 입장은?

— 인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있

게 핵심은 아니다. 외향화 교열의 적

선택제를 통한 학생들이었으나 박승준 재단 겸

의원인은 자주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

— 원래 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외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외대인은 자주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

— 원래 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간 민족예술 봄호

-한국민족예술총연합

4·19일

-김국태 지음

비평

<1> 대중매체와

획산과 비평의 중요성

<2> 만화

<3> TV

<4> 노래

<5> 영화

'다각적' 방법, '다층적' 내용 절실

이것이 무슨 영화평이냐라는 불만의 소리를 풍겼을 때 된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이해하는 그 불만은 곧 해소된다.

영화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7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저널리즘적 방법 ②한마디로 친구 ③작가주의적 방법 ④영화학적 방법 ⑤사회과학적 방법 ⑥예술학적 방법 ⑦디스플로고리즘적 방법이다. 이들 중, 관객은 저널리즘적 방법이 있다. 영화관람의 단계는 관람전, 관람 중, 관람후로 나누어질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영화읽기를 위해서는 원작, 시나리오, 보도자료, 감독과 연출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작품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영중인 영화의 대사연구를 위한 녹음기, 스크린샷, 비디오판일, 멀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무비이

리'라는 기계등의 보조도구들도 등장하면서 더욱 훌륭한 영화읽기가 될 것이다.

영화읽기의 기본은 동장인물들의 심리분석이며 심리학적 분석은 배경이나 주제가 필요하다. 또한 영화에 사용된 수사학 즉 언어, 몽타주와 포커스, 프레임, 대사, 음악, 효과를 포함한 트랙의 구체적 연구는 필수기준이다.

영화관람의 단계는 관람전, 관람 중, 관람후로 나누어질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영화읽기를 위해서는 원작, 시나리오, 보도자료, 감독과 연출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작품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영중인 영화의 대사연구를 위한 녹음기, 스크린샷, 비디오판일, 멀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무비이

화연구도, 영역공간과 균형유형, 일련의 형식과 달려진 형식의 차이와 의미를 해야겠다.

평점에 있어서는 몽타주, 기법과 헤드, 몽타주, 편집, 인한 영화, 몽타주와 대사, 영화음악, 영화언어, 감독과의 스토리의 파악이라는 '영화읽기'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영화의 드라마성 면에서도 시간, 공간, 언어, 배우, 감독, 무대장치의 의의를 파악하고 영화의 문학적 측면에서도 서술구조, 장르, 향상, 축면에서도 서술구조, 장르, 향상, 서술시점을 이해해야 한다.

유비른 영화읽기와 영화읽기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다. 멀티없이 시작, 훈련과 역사와 철학을 관조하는 성으로 정신의 소유자인 세스와 평론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 예술인들은 유비른 책을 수 있을 수 있고 상인영화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토피에 영화의 분석, 테마와 창작의 도, 긍적요소, 시각요소, 음향효과와 대사, 영화음악, 영화언어, 감독과의 스토리의 파악이라는 '영화읽기'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나마 가족에게는 영화산업과 상인영화의 향토성을 파악하면 산업영화의 풍자, 텔레비전 기법과 헤드, 몽타주, 편집, 인한 영화, 몽타주와의 독특한 형식구조와 상장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비른 영화읽기와 영화읽기는 영화에 있어서 다른 멘탈리티 기법과 전작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특수한 상장성을 이해하는 일과 새로운 영화기술을 응용하는 직각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를 관조하는 성으로 정신의 소유자인 세스와 평론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 예술인들은 유비른 책을 수 있을 수 있고 상인영화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장석용 <영화평론가>

영화를 잘 해석하고 잘 읽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영화를 감상하고 스스로만 영화에 남는다면 영화라면 매체에 접근하는 옮버리를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옮버리는 영화감상은 자기나 나름대로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영화를 읽어야내야 한다. 영화란 영화의 시초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분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영화평은 '영화관객에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저널리즘적 비평이지

□민예총 사단법인화 후 7개월, 트튼한가

불안하지만 중심잡은 '외줄타기'

보수화, 상업화 등의 우려에 대한 자기견제 필요

"솔직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년에는 미리 계획할 수도 있고 민중문화는 '대안문화'로 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족예술총연합(이하 민예총) 조직국장 정희설씨가 힘어놓는 민예총의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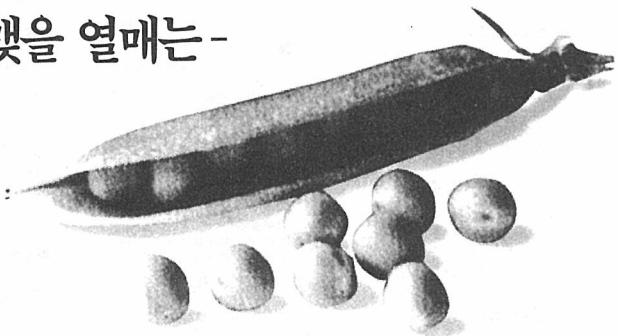
지난 10월 사단법인으로 인가받고 올해 2월 출회를 거쳐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있지만 상인화,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단법인화, 그후

민예총이 사단법인화한 후 주최했던 행사는 예전에 비해 대행회되었고 대행화되었다. 지난 2월에는 문예회관에서 '동물의 새끼'이 열렸고 3월에는 '민중미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었고 있다. 또 얼마전 '다시사는 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였다. 이외에도 동화영화 1백주년 기념사업, 6·10행랑 기념행사 등을 온 한해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열어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연 대부분이 연일 판례으로 끝나는 등 호황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지역적 분리화에서도 밤길이 끊이지 않았던 '민중미술' 15주년,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 후 가장 많은 관객을 유치했던 '다시사는 봄' 등 춘비단 민예총 관계자들도 늘 정도였다.

POSOC메세지 면학편

10년후,
내가 맷을 열매는-

생각하는 외대, 외대발전

일어설 3주체의 지혜 필요



외대에 어문계열외의 상경, 자연, 인문계열 학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36% 아니오 64%

으로 '아니오'가 80명 (63.4%) 으로 '예'라는 대답보다 두배 이상 많아 결국 외대를 떠나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외대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은 대학에서도 외국어를 다루는 학과가 많아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해시 글이 외대에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관심 원인이 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외대의 위상은 묻는 8, 9, 10번 문항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화 시대 외국어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도 외대에 대한 위상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출은 면적과 낙후된 시설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외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라는 10번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다수가 '국제화'라고 대답한 것

같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외대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위성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가 크게 높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번성을 요구한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교의 위상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먼저 제단의 학교로 대학 투자를 즐기려도록 해야 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뒷의 조사내용은 "외대"라고 할 때 가장 기억나는 인물은? 을 묻는 3번 문항에서 이승환, 유열, 안성기 등의 순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외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 (90%) 외대는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아 (80%)

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외대에 대한 인식은 학교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외대의 위상을 묻는 2번 문항에서 교

직원을 대부분이 '조금 하락함 (50%)'과

'그대로 (18.7%)'로 대답하여 전체적으로

는 '그대로'이후가 80% 이상을 차지해

외대의 위상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다. 외대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직원들의 인식은 3번 문항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외대에 전문인한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3번 질문에 경희대 (32.1%) 와 성대 (25.6%), 중앙대 (17.8%) 등으로 80% 이상의 대답이 서울의 종합권 대학을 답변한 것. 고대 등 상위권 대학과 등등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80년대에 비해 위상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외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대답을 한 이유로 '부인인지를 묻는 문항' 외대발전에 있어서 가장 친밀감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5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외대발전에 대한 전 구성원의 관심부족 (44.4%)'이 가장 커졌다.

교수·학생·직원의 분위 (29.6%), 학

설문 일시 : 1994년 4월 13일~15일

설문 대상 : 재학생 - 양캠퍼스 학생 345명

고등학생 - 고3생 및 재수생 117명

교수·본교 교수 37명

직원 - 본교 직원 42명

설문 장소 : 본교 양캠퍼스 및 수도학원,

제일학원

교수의 무성의 (11.1%), 재단의 학교발전에 무성의 (7.4%) 이 차례로 나왔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당연한 문제를 농통적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설립일 것이다.

이것은 학생과 교수가 외대발전의 걸림돌로 가장 많이 닦았던 '재단의 무성의'와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

또한 6번 질문에서 '재단은 제 역할을 하고있다 (31.2%)' 와 '매우 (6.2%)' 가 나왔는데 또 2자 외대발전 중장기 계획안 (94-98)에 대해 알고 있느냐? 라는 8번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68.7%

%였다.

그러나 7번의 캠퍼스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이문론은 확장하고 육상은 그대로 나누는 협동체제를 유지하자는 대답이 40%, 이문·육상의 자구동 등체학, 육상의 이공계열 특별반 (28.6%), 재단소유 부지 (자구동 등) 배각으로 서울시내 캠퍼스 부지 소상 (13.3%) 등으로 답해 외대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지 구상이 있음을 드러냈다.

교수들이 생각하는 외대발전의 장애물은 재단의 무성의 (33.3%), 외대 구성원의 관심부족 (31.3%), 외대 위상과 직원들의 교육적 무성의, 교수·학생·직원들의 분위도 14%가 남게 거치했다.

위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재단은 외대발전에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부정적인 대답이 45.3%, '보통'이다'가 22.8%, 부정적인 응답이 5%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교수들은 아직도 외대가 이전부분에선 타대 학교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생각하는 외대발전의 장애물은 재단의 무성의 (33.3%), 외대 구성원의 관심부족 (31.3%), 외대 위상과 직원들의 교육적 무성의, 교수·학생·직원들의 분위도 14%가 남게 거쳤다.

위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보통'이다'가 22.8%, 부정적인 응답이 5%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교수들은 아직도 외대가 이전부분에선 타대 학교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생각하는 외대발전의 장애물은 재단의 무성의 (33.3%), 외대 구성원의 관심부족 (31.3%), 외대 위상과 직원들의 교육적 무성의, 교수·학생·직원들의 분위도 14%가 남게 거쳤다.

위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보통'이다'가 22.8%, 부정적인 응답이 5%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교수들도 학생·직원과 더불어 재단의 학교발전의 의지에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대의 미스터 플랜이라 볼 수 있는 캠퍼스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문·육상의 자구동 등체학, 육상의 이공계열 특별반 인에 32.3%가 답을 했고 육상으로의 통폐합안에 25.5%가 답을 했고 육상으로의 통폐합안에 20.5%가 응답했다. 또한 이문 캠퍼스만의 자구동은 이전에 14.7% 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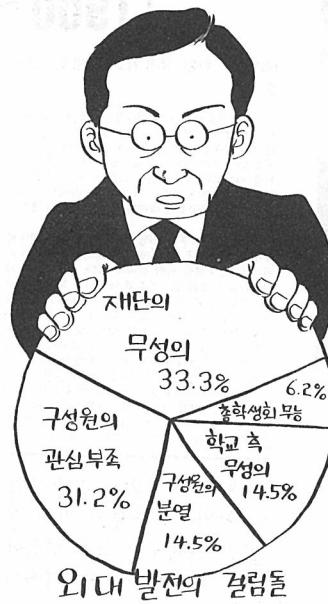
이를 보면 자구동으로의 캠퍼스 이전에 통의학·체육학·교과대학으로의 통폐합으로써 서울캠퍼스의 공간부족난이 절실히 앓고 있다.

한편 '2자 외대발전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5.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교수들은 외대발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중장기 발전안에 반드시 포함될 선결 과정으로서 '교수충원' 문제가 45.4%만이 거치했고 진보적 교과안으로 개편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과 직원들이 진보적 교과안 개편을 중장기 발전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교수충원은 가장 많이 교수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현실속에서 교수들이 느끼는 고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얘기되고 있는 지역화에 대해 교수들의 요구도 어느정도 있어 앞으로 미스터 플랜에 학생·교수·직원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부>



교수

재단은 외대발전에 제역할을 하는가에 45.3%가 부정 중장기 계획안 절방이상이 무지

다섯번째 서울캠퍼스 빠어지기와 학생회

Seviyorum!

(터어키어로 '사랑한다'는 말)

항상 웃직이는 모습으로 학우들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터이키 7인방.

바로 학생회 일꾼들이다.

이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하루를 여는 모임을 갖는다.

'오늘은 어느 소모임이 세미나를 하고'

누가 생일이라 대자보를 써야 하고……'

그리 거창하지 않은 말들이 오간다.

그러나 이 시간이 있기에

터어키어와 111명 모두가 끈끈하게 묶일 수 있다.

오늘도 이들은 과방문을 힘차게 열어제끼며 외친다.



않은 당당한 투쟁의 길

여우동사 이정호

는 일어겠지만, 남한 벽화운동에서 학생운동 세력을 가져야 할 책임임에 틀림없다. 선배들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래 많은 부분이 역사하고 힘기에 부끄럽다. 한 습격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편집자>

용인 캠퍼스 (1982~1993)

본래 용인캠퍼스 학생운동의 첫 출발은 봄몇 명의 학생들이 조선수도 활동을 시작했던 82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이제 제 2캠퍼스가 이전을 하기 전이라 소속감 없이 낮은 수준의 운동성을 길러내는 것이 전부였다.

83년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을 충돌하는 경찰이 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그 당시 지역 쓰는 빛 탑기 선전방법이 처음으로 언론판에서 5분간 전재되고 그 뒤에는 2명의 학생이 경제 징집 당했다.

84년 이른바 학원 자유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내에서는 경찰이 철수하게 되고 어려워서 소모임 형태로 지하활동을 하던 학생들은 대중조선 건설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광개운동을 조직하는 '민족사연구회'가 처음으로 경제 동지리로 인연이 된다. '민족사연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2주만에 1백여명의 학생들이 가입한 정도로 높았다.

이때부터 학내에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대자보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렇게 모아진 역량으로 그 해 5월 17일 최초의 학내 집회를 갖고 교문진출을 시도하게 된다.

당시 교문이 없던 본교에서는 학원을 확장 조치로 학내 진입이 금지되었던 진정과 학생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 학교를 놓고 티격태격했을 정도로 학교상황이 열악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학생들의 학원민주화 투쟁을 더 빠르게 시동하고 84년도 2학기엔 드디어 학도 호국단이 철퇴되고 학생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의 매일 1천여명의 학생들이 결집하여 이른 캠퍼스 본관과 충장실까지 진입했다.

이때의 한 일화로 집회마다 빨간 바비리를 입고 학생들을 보던 경찰(아이비 84)이란 여학생이 있는데 그녀는 당시 여학생들은 숨자리를 같이 하는 것 조차 헐값이라며 집회에서 여학생이 사회를 본다는 것은 회기적인 일이다.

'빨간 바비리 아가씨'라고 불리우는 정유경은 용인캠퍼스 학생뿐 아니라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까지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이하 그 당시 상당수 활동가들이 중장계를 받은 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학생들은 충학생회를 통한 대중투쟁의 소중한 경험을 맛보게 된다.

또한 85년에는 회화대학, 씨름연습장이 결성돼 지금의 대중조직 체계가 점차 자리잡기 시작한다.

당시 대외부동 등은 지금은 같은 대학교로 '국립대'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분 배(전술)'·'5분 배' 등을 이용한 많은 선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관공체육과 본교의 수련 활동부대가 된 남성부대에서 처음으로 태 대학생들은 집회를 갖기 시작한다.

86년에는 그동안 축의된 역량을 풍靡하여 본격적인 대중운동을 선언하면서 또 다른 운동이든 그 외의 정장을 입은 학생들이 전한 천원식 시기였으며 이때부터 본교 학생운동은 일반화되며 반미자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

86년에는 대동역 직선제로의 개헌 요구를 중심으로 무쟁이 이루어졌는데 성남시청 앞에서 처음으로 본교 주도의 집회를 갖게된다.

한국사회 민족운동의 큰 죽을 이루었던 87년도는

88년은 운동의 과학적 정립을 이룩한 시기였으며 이 때부터 일관되게 반미자주화의 길을 걷는다.

그때 조로부터 비종별 열사 고문 치사 사건으로 전두환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기는 폭발하여 6·10 민주화항쟁을 맞이한다.

88년에도 외인의 무정연기는 식지 않아 4월 한 학생이 전경이 진진 물에 빛난 실명단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하는 경찰에게 고발되었고 이승만과 서인 죄상 규명부정 때는 기밀고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당시 학내 간부들에 대한 단一是 무시한 정도여서 중앙간부가 거의 모두 구속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무정연기는 갖기지 않아 91년 6·3 청원의 국무총리 서리 항의시위까지 벌었고 전개된다.

<신동현 기자>



88년 5월 용인캠퍼스, '6·10 남북청년학생회' 성사를 위한 걸의대회.



88년 9월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제2캠퍼스 충학생회연합(간)' 발족식.



89년 용인캠퍼스 광주학살 부정비리 노태우 정권 철단 투쟁.



91년 용인캠퍼스 수서비리 규탄대회.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역사

재단의 자기발전 노력(?) 속에 미진한 학교발전

54년 설립에서 76년까지

52년 당시 설립자 김홍배 박사는 대학설립인가를 받고 54년 4월 종교2법 영보법(기교2법)에서 '한국 국문대학'을 설립, 한국 최초의 외국어 전문대학을 연다. 영민인 박현서 학교의 문을 엔 것은 1월 8일이었지만 첫 강의를 시작한 날은 기념하여 본교의 대학으로 4월 20일 정한 것이다. 그후 57년 9월 1일 원 서울캠퍼스 부지로 옮긴 본교는 김홍배 이사장이 내세웠던 '대학의 경향성은 우수한 교육진의 확보'에 있다. 주강대학과 주관대학발전에 비용을 교수영입비에 투자한다.

60년 당시 4·19는 사회의 격변과 함께 본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다. 그중 46학년생이 전진 본교의 경기하고는 본교발전의 요구문이 분출했던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학원민족회와 관리에서 학생들은 한 계단이 학교의 모든 권한에서 물러나 것을 요구했다.

또한 16일 여섯명 교수의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불불기 시작한 일련의 무정은 이를 반대하는 학생건너 유엔총장을 임으기 시작했다. 결국, 문교부(의)의 학생증 험상 중계속에서 비록 재단이 이르는 못했지만 학도호국단의 해체와 성명을 발표한 몇몇 교수에 대한 재단의 해임통보로 일어졌다. 이 사건은 결국 박슬운 학장의 사퇴로 일단락되었고 국립을 맞게된다.

77년부터 80년까지의 변화

이 시기에는 외대대학에 따른 재단과의 갈등투쟁이 이뤄졌다. 우신장교의 회유언과 입학원과 대학에 주어진 투자의 확대와 본교로서는 양적인 평장을 하기 위해 가강 호기였다.

박슬운 학장의 정년퇴임 이후 회유언장을 중심으로 전진본교의 중립화 추천계획은 78년 전격 발표되어 이른다. 그 이후인 77년 회학장을 취임한 기자회관에서

'본교의 가장 커다란 난점중의 하나는 공간협소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 경례에는 교지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비판해 있다. (본문: 77년 5월 21일자 1면 참조)

이 중립화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시장과 교육원 설치, 복지·상경학부

분리, 통사교역대학원 개설등으로 용인분

교, 설치에 관한 계획서가 작성됐다.

또한 본래의 진기대학 전환을 주선, 80

10월에 확정된다.

문제표출 시기, 81년부터 84년 까지

양적팽창에 기울였던 용인교설립계획은 81년 3월 1일 본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점진적인 부실로 인해 또다른 문제점이 남았다. 81년 9월 용인캠퍼스에서 첫 강의가 시작되었으나 교통, 기숙사 시설의 미비상태로 인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은 단위로 달아나.

이후 80년 9월부터 총학생회의 부수건을 신축시작되면서 하나로 학원민족회의 기운이 다시 오르게 되고 부수(부수) 재단에 대처하는 학생들은 비판은 계속되었다. 이에 재단총재는 용인캠퍼스 건설, 이전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단 초기 계획구도와는 달리 그 실행이 부진했음을 지적하는 학생들이 비판을 일으키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부수에게 급급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이는 용인캠퍼스 건설, 이전계획이 학교발전을 위한 끝난이리기 보다 재단 수익사업의 큰 기쁨을 시사해 주는 경기도이다.

재단의 개편, 85년부터 87년 이전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약 상속인이 이뤄졌다.

그 이후 해마다 등록금 학상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수여되었거나 개인에게 수여되는 수상으로 유명한 것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존경심을 축발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학생회 총장이 되었던 87년 대신 열기속에서 학원민족회 운동을 일으키는 이숙경여사는 이숙경을 낳았다.

그 이후 해마다 등록금 학상을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수여되었거나 개인에게 수여되는 수상으로 유명한 것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존경심을 축발시킨 것이다.

재단의 학교 자산운영과 관련해서

87년 학원민족회는 이숙경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8월 9일 김홍배 이사장이 지난 73

세도 별세하기 전인 80년 6월 25일, 그의

부인 이숙경여사(현 재단 이사장)에게 계

약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날은

87년

□ 김오농민전쟁 문학기행—'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들어다오! 갑오년 한울북 울리는 함성을

갑오농민전쟁 1백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 웨운 기념시
선집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를 그 속으로 전적지
를 중심으로 문학기행을 떠났다. 정읍군 등의 전
봉군·정읍군 고부군·황토현 동학혁명기념관을 거쳐
면서 시인들의 시속에서 부하고 있는 혁명의 기
운과 이데일에 면연이 흐르고 있는 시대정신을 선영
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반도의 땅이 언제부터 사쿠라 꽂았을 홀난리는 봄
날로 빛을 헤웠을까. 그늘에 햇살이 펼쳐져 일
어섰던 농민군의 노Hall(노당). 짐을 떠나온은 도
방에 뻗어져서 서 있는 빛과 이 불상은 농민전
쟁 진짜로 찾아 황토현에서 만석보를 더듬으니
이 시내에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화토현 동학농
민혁명 기념관은 일본군 장교 출신 복장화가 세워
고 농민군 고기념관은 전두환이 세웠더라. 기막힌
대조였다.

한 시기엔 '녹두꽃 피는 그 마음에 가면 홀이
온다고 물고 푸른 피와 사는 그 가슴이 푸른지 같은
물을 남기더라고' 노래했던 그 마을 풍물(風物) 농
민군의 생활에 가고 있다. 세아 세아 파랑세아
농두밭에 앉지 말라... 흙을 거두려면 필자들을 태워
나온 듯한 운전기사는 "여기 무안하고 정읍경계
요. 저어가 김제행이고 저어가 모의산이요. 이 를
온 다 섬진강 물이요" 라며 차를 기르자 준다.
오늘의 저녁이 더 후에 가서와. 봄간판에 가벼워 끌
도 보이지 않는 이 를 판 물건 흙을 바리본다.

눈이 모자리 못 보겠는 노래진신·당신과 우리를
의 기운이 있던가? 아득한 웨인번·임빈과 베슬아
카와 조선왕이와 이전제의 복세 속에서//그뒤엔
풀사조와 떠나온들은 동학회사사...

시인 신석장은 눈물로 소작인의 후예에게 드
높은 기운과 함께 고통도/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과/구구보다도 자기 시름과/장 청진으로 사
랑하고 싸우고/한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기꺼이
동의했던 사람과/그의 아버지/키가 작아 해
서/녹두꽃이나 부리기하고...

황토제 하늘에 솟아자 동학혁명기념관을 우러러
본다. 갑오년 이후에도 역시의 시에서 선인의
용기를 배우고자 했던 수많은 암상심이 올라다녔
을 이 담. 그들에게 열렬한 힘을 주었을 이 담.
가보세 가보세 울미려 울미려 병신되면 끗기!

예나 지금이나 호남벌은 풍요롭다 변하지 않는 건 농투사니의 한숨이고 설움이였다.

얼마전 내린 단비에 헤길된 들을 보며 걸었다.

녹두장군의 헤길은 지팡이를 개방된 지팡이를 사
이에 떠나 버ти고 있다. 전봉준·장군이 짚었던
풀을 밟고 넘나들었을 사립문을 세치고 바탕에 들
어섰다. 그의 세운 문은 흰색이었지. 여기 세
간짜리 저마다 키가 높았지. 오무리 모인 농부군들은
차들같이 듯을 굽혔으리라. 이방에서 조선증조(?)와
전봉준을 머리에 스놓았을 때를 위해 농민군을 위해
나 걸게 썼을 것이다. 친왕이 유키가 그 사법률문
은 헛불이 되어 이름이 타오르고 있었으나.

'혼자 찾았지?' 그린 걸에 가서 땅이나 먹고
가. 내내장 찾은 농부는 그냥 보니면 뜯어 그려온
손이?' 라며 뒷집에 산다는 농부는 한시고 손을 잡
고 있다. 막 눈간고 들어온 김기연이며. 왜 이렇게
개 들에 사람이 없느냐니 '요즈음 세상에 누가 농촌
에 살리겠다' 하면서 농민들을 내친다. 쉼은 넘어보
이는 그들이 그레고 이 풍네에서 젊은 쪽이다고
한다. 흙에 빠져살면서 이제껏 땅과 하늘을 믿으
며 죽하게 살아온 농민들. 혼자 빼겨지면 못쓴다
며 문밖 운전기사가 나온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봉
준이다.'

'황토현'이라는 글씨는 노래를 들으면 농촌에 사람
과 수두룩하여 나왔다는 황토현에 같다. 김남주
시인의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불길 어린 고통도/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과/구구보다도 자기 시름과/장 청진으로 사
랑하고 싸우고/한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기꺼이
동의했던 사람과/그의 아버지/키가 작아 해
서/녹두꽃이나 부리기하고...

황토제 하늘에 솟아자 동학혁명기념관을 우러러
본다. 갑오년 이후에도 역시의 시에서 선인의
용기를 배우고자 했던 수많은 암상심이 올라다녔
을 이 담. 그들에게 열렬한 힘을 주었을 이 담.
가보세 가보세 울미려 울미려 병신되면 끗기!

'제족구민·보국민민'이 세겨진 탑신에는 그날 녹
두장군의 피와 물(盟誓) 농민들의 피진 한성에 들어온
민족은 이기 흥행한에서 최초로 민족의 승리를
맛보았다. 죽장왕, 페어와 봄과 토지와
자유를 생활했다. 그리고 세로이 테어났다. 갑오
농민전쟁의 힘은 세계를 뛰어넘어 울리고 있다.
여전히 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가슴에, 저기 명
성당성 도시의 한복판에서 수입재방지지를 위해
나 걸게 썼을 것이다. 친왕이 유키가 그 사법률문
은 헛불이 되어 이름이 타오르고 있었으나.

'혼자 찾았지?' 그린 걸에 가서 땅이나 먹고
가. 내내장 찾은 농부는 그냥 보니면 뜯어 그려온
손이?' 라며 뒷집에 산다는 농부는 한시고 손을 잡
고 있다. 막 눈간고 들어온 김기연이며. 왜 이렇게
개 들에 사람이 없느냐니 '요즈음 세상에 누가 농촌
에 살리겠다' 하면서 농민들을 내친다. 쉼은 넘어보
이는 그들이 그레고 이 풍네에서 젊은 쪽이다고
한다. 흙에 빠져살면서 이제껏 땅과 하늘을 믿으
며 죽하게 살아온 농민들. 혼자 빼겨지면 못쓴다
며 문밖 운전기사가 나온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봉
준이다.'

'황토현'이라는 글씨는 노래를 들으면 농촌에 사람
과 수두룩하여 나왔다는 황토현에 같다. 김남주
시인의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불길 어린 고통도/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과/구구보다도 자기 시름과/장 청진으로 사
랑하고 싸우고/한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기꺼이
동의했던 사람과/그의 아버지/키가 작아 해
서/녹두꽃이나 부리기하고...

황토제 하늘에 솟아자 동학혁명기념관을 우러러
본다. 갑오년 이후에도 역시의 시에서 선인의
용기를 배우고자 했던 수많은 암상심이 올라다녔
을 이 담. 그들에게 열렬한 힘을 주었을 이 담.
가보세 가보세 울미려 울미려 병신되면 끗기!

정읍군 이방은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운동을 일으킬 당시 거주하였던
집입니다. 조선조 흥종 1년(1655)에 이방에서 출생 서당 훈정으로 있었다.

나를 타파라 말하지 말라/그것은 저현지자의
분노의 화신! 그것은 말이 아니라/조방감의 기습파
에 끝난 칭창이나/팀판오리의 모기지에 끝난 칭창이
/외적을 끌어들인 간신행복의 통곡에 끝난 살죽이다.
—정경 '동학혁명기념관' 등—

황토현 너머 서쪽 하늘로 한 뒤박 진위허에 얹
걸리진 벗빛 노을이 어둑어둑 필자를 내려다 보고
있다.

민족의 힘성을 기슴에 안고 황토제를 내려왔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어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 다른 것 있는가 아니겠지. 창성을 도단중에서
진지로 국가를 반석위에 두자 두자 한이니,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받은 민족들과 땅과 수령 밑에
글육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작으로 일어서

배들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빙집은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도회지로 떠난다.

서울로 향하며 서울로 가는 진봉준을 본다. 진리로
피어리에서 불러온 농민의 아버지, 타는 눈빛을 본다. 그 누가 알지. 소문은 갈기갈기 바탕에 실
려 농부사니에게 왔을 때 그때 그 아버지들의 분노
를, 떠나기 전 더욱 국밥 한그릇 맑아주지 못하고
조선 황토이처럼 모여 울어주지 못한 그 농
민의 한을. 이제 전봉준 정경의 고백에서 한사코
방황하기 며칠 보내온 그 농부는 조부의 그 한을
대대로 이렇게 깨우고 놓을 것을 것 같아.

김술은. 김술은로부터 베낸이 됐을까. 진단례
는 온 신천에 베낸은 피었다. 깊은. 지금 우리는
그때와 옷만 바꿔버렸다. 달라진 것은 없다. 올해
도 민집은 늘어난가 하고, 젊은 사람들은 도회지로 빠
져나가고 있다. 여전히 농민들은 한숨짓고, 오늘
이 땅의 성을 온몸으로 푸르렀다. 농민들은 농민으로.
모로코에서는 U자형 정자에 채택하고 신문, TV는 세
계 모든 나라들이 개별을 번역하고 퍼뜨리고 있다.
2001년을 향한 미래의 지구무역경쟁 시
대라고. '님네' 나이가 났구나는 엔 묵으가 아닌
안 듣 싶다.

봉준이 봉준이/봉준이를 부른다/텅 빈 의장간에
서 한술짓던 무지/고구 마늘에서 노는 농민에게 모여/저자
진근희발 세례/우리의 합창을 짓기지리다/수입
기방·길·번드니의 의지로/농기·조방감·전면전기·김의
구로/우리 하나님과 봄신이 되어/우리 함께 봄준
이 되어/이 깊은 생애의 꿈을 부른다/봉준이 봉준이/봉준이를 소리쳐 부른다/
저 놓고 푸른 하늘 아래/우리 너니 평평한 들판
꿈꾸며/봉준이 봉준이/봉준이를 부른다/

—고제중 '한성지 부르는 이들'—

<오마니 기자>

□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찾아서

무명농민군의 후예들, 갑오년

혁명정신 역사적 재조명 활발

'한 세기전 이 땅에 울려피쳤던 동학
농민군의 정엄한 창의문을 짜우리며 우
리는 오늘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
회'의 출범을 엄숙히 선언한다'(장립군·
언문·중)

1백년 끝을 2년 앞둔 지난 92년 6월, 동
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동백회)는
농민항쟁을 끝으로 있었던 경리도 땅을
증집으로 전주에서 역사의 무게를 괴강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현재 기념행사부과, 학술분
과, 문화예술분과, 홍보분과 등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이후 전
직지 순례, 시민강좌·월례세미나·'백
산에서 황토까지' 시민걷기대회 등을
통해 순수민간운동으로서 경로·민족·정
의·성장을 꾸민기록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울리는 지난 2월의
경기와 함께 3월에는 전주·연극·제조명
과 울마를 짜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있다.
91년 말부터 전북지역의 학계·언론·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람들이 뜻을

서울총학, 정기총회 개최

장기계획수립·외대인의 날 개최 결의

유. 한예 학원지주부무령의
포문을 염는 제 28회 정기학생회
경기학생총회 및 전국인의 날
13일(수) 노천극장에서 개최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학생총회는
부대에서는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노래가 반복 부르기, 새내
기 편성기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영어·법·경제·행정·터
아카데미 등 5개과 출전한 새내
기 편성이 한마당으로 출전한 새내
기 편성에 관한 내용으로 경
체로 출전한 경제학과가 1위
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정기학생총회에서

6·3투쟁 관련 구형공판 열려

본교생 3명 징역 1·2년 구형

6·3정원식 국부총리서리 할
의사의 관련 구형공판이 지난
14일(목) 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독심
으로 열렸다.

이번에 복구수로 입건된

본교생은 정상용(동양·일본어
90), 권홍상(동양·이란어 89),

정철(영어·신한·영어·한국어 89)

3명이 정상용에게는 징역
1년, 권홍상·정철에게는 징

은 유해 기록 및 부정방향으로
△증정기 발전기설비 수립△
외대인의 날 개최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외대발전 학생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학진(

(법·법학 4)군은 “얼마전
있었던 단국대가 친환경파스로
이전 계획을 실행한 것은 너무
나 성급히 전선했기 때문”이라

며 “동일한 단은 원산이전을

시작으로 한 후에 진행될 예

하고 있다”라고 대학당국에 자

과동 이전을 중심으로 한 마스

터 펼친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동북금 투쟁(동북)에

대한 보고서에서 상경대 학생회

장·경기여대(경영 4)군은 “그동

안의 등부에 대한 한계와 오류

를 인정한다”라며 “동부는 계

속적인 예산과 집행감시로

대법원의 흐름에 따라 외대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수기방지지부회(수기부)에

관해서는 총무처회장 전원

(동양·이란어 4)군이 “본교는

이전까지 수지부에 대체 분위

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으나 않으

나 각 단위로부터 결의를 내어

수입개발 저지를 위한 모임이

결성된다”라며 “정기총회가 끝

난후 구국단식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을 지지방문을 가자”

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충학생회 예술단

공연, 경행부 인증 및 소개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 박 터트리기, 문선등으로

진행된 전군식에는 오전

10시 40분 정기총회장

정기총회장을 친환경

주인으로 되는 주주학원을 건설

할 일부와 600만 원과 민족의

생존을 버팀줄로 내보는 미

국의 부당한 경제침략 저지와

주주동일을 이어나가”라고 결

의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처음에는

산만한 분위기로 진행되기도

했으나 경행부에서 거두행진을

벌이고 노천극장에서 절을

하는 등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

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라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가지

는 친목이 되었다.

외대는 밝힌 해야 한다. 아

니, 옛날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

다는 생들에게 알리고 자부심을 갖

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외대발

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학생들은 저지와 일정을 정

분야에 소진이 있으면 그 학

생을 전문적인 교육의 시장에서

걸리려 한다”라고 선배님은 외

대발전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54학번 선배님은 본교를 54

년도에 입학했다. 소위 말하는

50여년인 생이다. 그 당시 독일

어디와 입학정원은 30명이었는데

학기에는 등록을 못하거나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해 등록에 탈

락되는 사람이나 많았으며, 편인

생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

국회 출마생은 13명.

이렇게 학생들은 직업으로도

봉사하고 그 당시 학생들의 실

력을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교

수수들이 학생들을 부서위한

경쟁으로 걸친 향기로운

경기에는 학생들은

경쟁으로 걸친

